

승진에 한 번! 봉사활동으로 또다시 기분 업!

- 태화일렉트론의 사회공헌 활동 -

1000 과장, 승진한 거 축하해!

이번 승진 봉사활동은 어디로 갈 거야?

승진을 했는데, 웬 봉사활동? 태화일렉트론은 해마다 인사발령과 함께 봉사활동 이야기가 꽃을 피운다. 회사와 직원이 모두 사회 참여적이어야 한다는 태화일렉트론은 봉사활동에 회사를 대표해서라는 수식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태화일렉트론의 사회공헌활동은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는 데서 시작했다. 지금도 신원호 대표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가장 마음이 쓰인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 하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1일, 그간 지원을 받았던 준성(가명)과 혜은(가명)가 태화일렉트론 본사를 찾았다. 아이들을 맞이하는 신원호 대표는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반기는 양 얼굴이 상기되었다. 낯설어 하던 아이들의 어색함도 잠시, 학교생활이며 장래희망이며 좋아하는 것을 말하자 이내 분위기는 푸근해졌다. 신원호 대표는 “지금이 힘들다고 생각지 말자,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좋아하는 것에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자”라며 말하는 잘해주려다 보니, 말이 길어진다며 도리어 쑥스러워 했다.

태화일렉트론은 이날 찾아온 아이들뿐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소개받은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를 매월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까지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올랐을 때, 성장의 결실을 함께 누리고자 노인요양시설도 수년간 후원해 왔다. 2005년 말에는 산비탈에 임시로 지어진 후원시설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데 여러 업체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태화일렉트론은 직원들의 참여를 위해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승진자들에 대한 '의무봉사활동 이수제도' 이다. 매년 정기승진자와 특별승진자들은 예외 없이 봉사활동을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다. 올해 승진자들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아동 보호시설인 '한사랑마을' 을 찾았다. 아이들을 씻기고, 시설 곳곳의 묵은 때를 벗기고 돌아온 승진자들은 회사에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호의적인 반응이다. 이밖에도 많은 직원들이 벤처기업협회에서 펼치는 '한사랑 벤처릴레이운동'에 참여해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태화일렉트론의 사회공헌활동은 신원호 대표의 관심으로 시작됐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승진자 의무봉사활동 이수제도나 한사랑 벤처릴레이운동 등 점차 직원 중심의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태화일렉트론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태화일렉트론은 이벤트성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정이 담긴 손길을 전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다.

